

왕양명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 인간주의 교육과 관련하여 -

최 일 범

성균관대학교

〈요 약〉

이 논문의 목표는 왕양명(王陽明)의 교육사상을 현대 교육이론 중에서 인간주의 교육(Humanistic Education)과 비교함으로써 왕양명 교육사상, 특히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특질과 그 현대적 의미를 밝히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왕양명의 교육사상과 인간주의 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따른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교육목표 및 교육방법론에 있어서 서로 접근하고 있다. 즉 인간주의 교육은 교육 목표를 인지학습(cognitive learning)에 국한시키지 않고 정의(情意)의 교육(affective education)을 지향함으로써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과 바람직한 인간관계(Human Relations)를 추구한다. 또한 왕양명의 교육 방법은 인간의 정서를 자유롭게 함양하고, 양지(良知)의 깨달음을 통하여 인간관계의 도리(道理) 실천을 추구하며,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추구한다. 이는 인간주의 교육과 양명학이 인간의 도덕적 자아를 진리 발견과 가치 실현의 주체로 보는 공통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인간주의 교육의 관점에서 양명학을 조명하는 것은 보다 깊이 있는 인간 이해와 세계관의 탐구에 도움이 될 것이며, 현대의 교육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핵심 주제어 : 양지(良知), 천리(天理), 본심(本心), 심즉리(心卽理), 인간주의 교육(Humanistic Education),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신의 직접성”(Gott-Unmittelbarkeit), 성독(聲讀), 중화(中和), 영가(詠歌)

I. 서론

이 논문의 목표는 왕양명(王陽明)¹⁾의 교육사상을, 현대 교육이론 중에서 인간주의 교육(Humanistic Education)²⁾과 비교하여, 교육의 목표와 학교 교육 방법의 측면에서 소개하고 그 현대적 의미를 논의하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왕양명의 교육사상과 인간주의 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따른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교육목표 및 교육방법론에 있어서 서로 접근하고 있다. 즉 인간주의 교육은 교육 목표를 인지학습(cognitive learning)에 국한시키지 않고 정의(情意)의 교육(affective education)을 지향함으로써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과 바람직한 인간관계(Human Relations)를 추구하며, 왕양명은 인간의 정서를 자유롭게 함양하고 양지(良知)의 깨달음을 통하여 인간관계의 도리(道理) 실천을 추구한다. 양자의 접근이 돋보이는 곳은 교육의 의미를 다름 아닌 인간 본성의 계발로 보고, 정서의 자유로운 함양을 그 방법으로 택한 데 있다.

인간주의 교육은 지식위주의 교육, 비인간적 교육방법 즉 교육의 공학화(technication)³⁾에 대해서 인간화의 목적을 가진 교육이 비인간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인간주의 교육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무엇보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 “현대”(Modern Times)에서 잘 묘사되었듯이, 지식과 공학 위주의 교육이 가져올 비인간화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교실이 하나의 생존경쟁을 위한 정글과 같이 되어 가고, 학생들은 그 속에서 긴장하고 억제

- 1) 왕양명의 이름은 수인(守仁), 자는 백안(伯安), 시호는 문성(文成)으로 명(明) 현종(憲宗) 성화(成化) 3년(1472년)에 태어나 세종(世宗) 가정(嘉靖) 7년(1529년) 57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그는 양명동천(陽明洞天)에 집을 짓고 살면서 양명자(陽明子)라는 호를 썼기 때문에 후에 사람들이 양명선생이라고 불렀다. 그는 명대의 대표적인 학자의 하나로서 주자학의 성즉리(性即理)를 비판하고 심즉리(心即理)를 주장하였으며, 주자학의 거경궁리(居敬窮理)설을 비판하고 치양지(致良知)설을 주장하여 심학(心學)을 완성하였다.
- 2)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주의(Humanism)는 서구의 근대문명의 기초로서의 인간주의가 아니다. 서구 근대의 인간주의는 중세의 신중심적 세계관, 인간관으로부터 벗어나 과학과 기술을 도구로 삼아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중심적 근대문명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현대의 인간주의 철학자들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근거한 근대적 휴머니즘을 배타적 휴머니즘(Exclusive Humanism)이라 비판하고, 포용적 휴머니즘(Inclusive Humanism)을 추구한다. 배타적 휴머니즘에서 인간은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와의 내재적 관계를 부정하며 과학과 기술을 도구삼아 자연을 지배함으로써 인간의 우월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포용적 휴머니즘에서 인간은 인간의 내재적 가치로서 선한 본성을 추구하고 실현하며, 또한 인간이외의 자연 만물에도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여 인간과 자연의 본질적인 상호 연관성을 인정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간주의는 바로 포용적 의미의 인간주의이다. 중국철학자 Chung-ying Cheng은 유교의 휴머니즘을 포용적 휴머니즘으로 규정하고, 유교의 고전인 중용과 주역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유교 휴머니즘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왕양명의 교육사상과 인간주의교육을 비교하고자 한다. (Chung-ying Cheng, "Cosmology, Ecology, and Ethics in the Confucian Personhood," Confucianism and Ecology, 225. ed. by Mary Evelyn Tucker and John Berthrong,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 3) W. H. Ferry, "Must We Rewrite the Constitution to Control Technology?" Saturday Review, March 2, 1968, pp. 50-54. Copyright 1968 Saturday Review, Inc. (C. H. Patterson 저. 장상호 역. 《인간주의교육》 p 24, 재인용)

되는 현실을 고발한다. 뒤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왕양명 역시 그가 직면했던 교실의 억압적 분위기를 쇄신하고 웃음을 잃은 학생들에게 밝은 정서를 찾아 주기위해 기존의 주입식 교육을 비판한다.

인간주의 교육과 왕양명의 교육사상이 다함께 학습자의 정서를 중시하는 근거는 인간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통찰에 있다. 왕양명의 유명한 명제 심즉리(心卽理)는 여러 가지 철학적 의미를 내포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인간의 마음이 곧 진리 자신이요, 인간의 마음을 떠나서 진리가 외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가 지시하는 마음이란 곧 선협적으로 도덕 판단이 가능한 양지(良知)로서 그 단초는 생명을 사랑하는 정감을 통해서 발견된다. 그러므로 왕양명에게 있어서 교육 방법이란 일차적으로 정감의 자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대 인간주의 교육의 선구자로 지목되는 페스탈로찌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선천적으로 박애와 사랑의 정신이 있다고 하고, 이를 토대로 “인간을 가르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그 나름의 방식으로 계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술에 불과하다”⁴⁾고 하였다. 즉 인간은 누구나 선협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교육이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계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일차적이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⁵⁾

비단 왕양명 뿐 아니라 유학자(儒學者)라면 누구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인 측은지심(惻隱之心)과 인(仁)의 덕(德)을 중시한다. 왕양명이 비판했던 주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자와 왕양명 사이에서 성즉리(性卽理)와 심즉리(心卽理)의 차이, 또는 거경궁리(居敬窮理)와 치양지(致良知)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듯이,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양자 사이에서 일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소학을 통해서 발견되는 주자의 경(敬)의 교육방법은 지속적으로 마음을 검속(檢束), 경각(警覺)하고 전일(專一)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왕양명은 음악과 놀이를 통해서 정서를 함양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도덕적 본심(=양지)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으로써 교육의 기본 방법을 삼는다. 이러한 왕양명의 교육방법은, 주자의 경(敬)사상이 한국의 교육학계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성과에 비하면, 거의 주목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양명학이, 주자학과 함께 송명유학의 큰 줄기를 형성하였으며, 주자학과는 또 다른 독특한 사상적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왕양명의 교육방법에 대한 관심은 전통 교육사상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의미에서 왕양명의 교육사

4) Johann H. Pestalozzi, How Gertrude Teachers Her Children (Syracuse : Bardeen, 1900), p. 26. (장상호 앞의 책 p. 68에서 재인용)

5) 페스탈로찌와 왕양명의 교육사상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이은선의 “페스탈로찌와 왕양명의 인간교육에 있어서 종교적, 철학적 근거 : 그들의 인간론과 교육론을 바탕으로 한 한 윤리학의 기초설정을 위한 시도”(《교육철학》 교육철학회, 1990)이 있다. 이 논문의 내용은 양자의 교육사상의 종교적, 철학적 근거에 대한 전체적 비교이고, 본고는 왕양명의 교육사상 중에서 학교 교육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의 특성과 교육학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인간주의 교육사상과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상을 특히 교육 목표와 방법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현대적 의미를 인간주의 교육과 대비를 통해서 조명하고자 한다.⁶⁾

II. 학교교육에 대한 왕양명의 문제의식

왕양명은 당시의 학교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근래에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자들은 오직 구두법(句讀法)과 시험에 맞는 글짓기만을 감독하고 검사하고 구속할 뿐, 예(禮)로써 인도할 줄 모른다. 충명하기만을 추구할 뿐 착한 마음으로써 배양할 줄 모르며, 때로 때리고 줄로 목기를 마치 죄수를 다루 듯 한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 감옥처럼 보아 학교가기를 꺼려하고, 선생을 마치 원수처럼 여겨 보려고 하지 않는다. 몰래 피하고 숨어서 놀기만 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어리석고 비굴한 짓을 마음대로 하니, 경박하고 용렬하여 날로 비천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가 학생들을) 악으로 몰아가면서 착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니, 어찌 될 수가 있겠는가?⁷⁾

학생들에게 오직 시험에 좋은 점수를 얻을 것만을 독촉하는 교사, 학생의 인격을 존중할 줄 모르고 폭력으로 대하는 교사, 그리고 교사를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지금으로부터 오백여년 전 왕양명이 지적한 당시 학교 교육의 문제는 오늘날 인간주의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인간주의 교육학자 홀트(Holt)는 학습을 참된 학습(real learning)과 피상적 학습(apparent learning)으로 구분한다.⁸⁾ 피상적 학습이란 기계적 암기에 의한 학습, 정답만을 찾는 학습,

6) 왕양명의 교육사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문헌은 《전습록(傳習錄)》 중권(中卷)의 <훈몽대의시교육유백송등(訓蒙大意示教讀劉伯頌等)>과 <교약(教約)>이다. <훈몽대의시교육유백송등(訓蒙大意示教讀劉伯頌等)>이란 글자 그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의(大意)를 교육(教讀) 유백송(劉伯頌)에게 왕양명이 말한 것이며, <교약(教約)>은 일종의 학교 규범으로서 역시 왕양명이 제정한 것이다. 이 글들은 기본적으로 아동들의 학교 교육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왕양명은 이 글을 통해서 학교 교육은 덕성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덕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 학생들의 정서를 질곡하지 말고 자유롭게 하는 방법을 택할 것을 주장하고 나아가서 신체의 건강을 교육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는 등 당시로서는 매우 과격적이며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왕양명의 교육 방법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 절대적 신뢰를 보여주는 그의 심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를 노래하고 예를 익히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교육방법은 왕양명의 교육사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며, 특히 학교의 수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7) 若近世之訓蒙者，日惟督以句讀課做，責其檢束，而不知導之以禮；求其聰明，而不知養之以善；鞭撻繩縛，若待拘囚。彼視學舍如牢獄而不肯入，視師長如寇仇而不欲見。窺避掩覆以遂其嬉遊，設詐飾詭以肆其頑鄙。偷薄庸劣，日趨下流。是蓋驅之於惡而求其爲善也，何可得乎？(195조목)

학습한 사실과 정보를 시험에서 되풀이하기 위한 학습이다. 홀트는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만연되는 일반적인 특징의 하나로 위협적 분위기를 지적한다. 즉 피상적 학습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실패에 대한 공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이렇게 할 때 교사들은 어떻게 하는가? 학생들의 공포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혹은 공포와 불안이 학습이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도외시하고 위협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더 큰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다. 인간주의 교육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왕양명 당시의 이러한 학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학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을 요구하고 학교는 거대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왜곡된 학교의 모습,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생의 불신 등은 바로 우리가 오늘날 고민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학교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왕양명은 다음과 같이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옛날의 교사들은 인륜(人倫)으로써 가르쳤는데, 후세에 기송(記誦)과 사창(詞章)의 습속이 일어나 선왕의 가르침이 사라졌다. 지금 아이들의 교육은 마땅히 효제충신과 예의엄치에 대해 오로지 힘써야 한다.⁹⁾

이러한 왕양명의 비판은 그 당시의 학교가 과거(科擧)를 위한 지식 교육에만 몰두한 폐해를 지적한 것이었다. 이는 명대의 유학교관(儒學敎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즉 명대의 교관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지위였으며 학교교육은 실질적으로는 단지 과거를 위한 학습(科擧之學)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명대 초기에는 유학의 전통적인 교육의 영향으로 수신(修身)과 경학(經學)을 중심으로 하는 신교(身敎)였으며 결코 거업(擧業)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었으나 곧 학풍이 크게 변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이 도래하였다고 알려진다.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학문을 말하면 곧 사학(詞學)과 박섬(博瞻)만을 말할 뿐이며, 교육을 말하면 책이나 주고 구두(句讀)만을 익힐 뿐이며, 성적을 말하면 공거(貢擧)에 부족하다고만 말할 뿐이다.¹⁰⁾

이상 명대의 학교 교육에 있어서 유학교관의 문제에 대한 지적은 곧 왕양명이 말한 것과

8) John Holt, How Children Fail(New York: Pitman Publishing Co, 1964), p. 167. 《인간주의 교육》 209쪽에서 재인용.

9) 古之敎者, 敎以人倫. 後世記誦詞章之習起, 而先王之敎亡. 今敎童子, 惟當以孝弟忠信禮義廉恥爲專務. (195 조목)

10) ‘號爲師者, 語其學, 則曰詞學博瞻而已耳, 語其敎, 則曰授之書習其句讀而已耳, 語其成績, 則曰貢擧不乏而已耳(《椒丘文集》 권10 送徐君志仁典敎遼化序 20쪽 上, 下. 吳智和 《明代的儒學敎官》18쪽에서 재인용, 民國 80년 臺灣學生書局)

일치한다. 즉 명대의 학교 교육은 거의 초기부터 과거에 합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교사의 지위나 역할도 전통 유학에서의 교사상(敎師像)과는 크게 달랐다.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사들이 대체로 단지 지식의 전달자로 인식되고, 학교 교육의 기능이 상급교육 기관에 진입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과 다르지 않다. 왕양명은 당시의 이러한 교육 문제에 직면하여 유학 교육의 본질인 효제충신과 예의염치의 도덕교육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 하였던 것이다.

III. 자아실현을 통한 공동체적 인격 주체의 실현

위에서 왕양명 당시의 교육 문제와 그에 대한 왕양명 자신의 문제의식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왕양명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였는가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왕양명이 주장한 도덕 교육은 결코 많은 학습과목 중의 하나로서 도덕이 아니라, 모든 교과목의 기본 과목으로서, 인간의 도덕적 본심인 양지(良知)의 깨달음과 그것에 기초한 자아실현 및 공동체에 적합한 인격체를 지향함으로써,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모든 지식의 상위에 자리매김하기 위한 교육적 근거를 확립한다는 의미였다. 근대 초기의 대표적 인간주의 교육학자 코메니우스(John Amos Comenius ; 1592-1670)는 그의 저서 위대한 교수법(*The Great Didactic*)에서 교사나 학생의 어느 편에서도 불편이나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모두가 즐거움을 가지고 유쾌하게 가르치는 종합적 예술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즉 인간의 정신에 영양, 보살핌, 및 운동을 조심스럽게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지혜, 덕성, 및 경애심으로 발전하게 한다는 것이다.¹¹⁾ 또한 페스탈로찌가 택한 교육방법 역시, 학생의 선한 본성은 강제보다는 사랑에 의해서 계발된다는 신념하에, 애정있는 분위기와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었다.¹²⁾ 따라서 왕양명과 인간주의 교육학자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본성과 그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및 자연스런 정서의 함양의 통한 본성의 발견과 실현은 공통적인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왕양명이 추구한 교육 목표와 방법은 바로 인간의 선한 본성의 실현이 삶의 궁극적 지표이며, 본성의 발견은 자연스럽게 즐거운 정서의 함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왕양명 철학의 핵심을 나타내는 명제인 심즉리(心卽理)는 인간의 마음(心)이 곧 형이상적 도덕 본체(=天理)라는 의미이다. 그가 가리키는 마음이란, 맹자의 측은지심(惻隱之心)과 같은, 도덕심(道德心) 즉 양지(良知)를 가리킨다. 왕양명에 의하

11) John Amos Comenius, *The Great Didactic*, excerpted in Noll & Kelly, *ibid.*, p. 108. 《인간주의 교육》 p. 58에서 재인용.

12) 같은 책. p. 69 쪽.

면, 측은지심은 형이상적 본체인 인(仁)이 발현(發顯)한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인(仁)과 측은지심은 체용(體用)관계로서, 인체(仁體, 형이상적 본체인 仁)의 작용 발현이 곧 측은지심이 되므로 심즉리(心卽理)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마음을 인식 주관으로 규정하고, 마음의 주관적 인지 기능을 통해서 객관적 도덕 원리를 인지함으로써 주객합일(主客合一)을 추구하는 주자학의 방법과 다르다. 주자학에서는 대상인 도덕 원리를 온전히 인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관인 마음을 정정(靜定)하게 하는 경(敬)을 강조하는데 반해, 왕양명은 본체가 발현한 '양지의 깨달음'(=致良知)을 중시하게 되는 것이다. 왕양명이 학교 교육의 방법으로서 음악 교육을 중시하는 것 역시 그의 치양지(致良知)의 방법과 연관되어 있다.¹³⁾

유교에 있어서 정서를 함양하는 음악 교육은 고대로부터의 전통이었다. 그것은 주자가 저술한 《소학》의 입교(立敎)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소학》에서는 《예기》 <내칙>(內則)편을 인용하여, 아동이 13세가 되면 음악을 배우고 시를 읊으며 작(勺)이라는 춤을 추게 하고 15세가 되면 상(象)이라는 춤을 추고 활쏘기와 말달리기를 가르친다고 하였다. 또한 《서경》의 <순전(舜典)>을 인용한 다음과 같은 내용은 음악 교육과 연관된 깊은 의미를 나타낸다.

기(藝)에게 명하기를, '너를 전악(典樂)에 임명하니 주자(胄子)를 가르치되 곧으면서도 온순하며, 너그러우면서도 엄격하게 하며, 강직하면서도 사납지는 않게 하며, 간단하면서도 오만하지는 않게 하라. 시는 뜻을 말하며, 노래는 말을 장단에 맞게 하는 것이며, 소리는 장단에 따르며, 음율은 소리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덟 음계가 조화롭게 서로 절서를 해치지 않는다면 신과 사람이 조화하리라.

이로써 보면, 고대 중국에서 음악은 감정의 중용적(中庸的) 조화를 위해 교육되었으며, 또 그 교육 목표는 궁극적으로 신과 인간의 화해라는 종교적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주자가 저술한 《소학》에는 음악 교육과 관련한 교육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입교(立敎)편 다음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명륜(明倫)편과 경신(敬身)편의 조목들은 학습자가 지켜야 할 행위 수칙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경건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지켜나가게 할 뿐, 음악 교육을 통해서 추구할 수 있는 정서의 자연스런 발휘와 감정의 조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유교의 음악을 통한 정서 교육의 전통은 양명학에서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감으로써 자신의 마음에 도덕원리가 선형적으로 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말하면 도덕적 자아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삶을 통해서 자아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곧 왕양명의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 자아 실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왕양명의 말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13) 왕양명의 경우 경(敬)은 천리를 인지하기 위한 인식론적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런 정서 환경에서 발휘된 본심(本心)을 보존하고 양육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은 모두 너의 마음이다. 너의 마음이 보는 것이 눈을 통해서 나타나고, 너의 마음이 듣는 것이 귀를 통해서 나타나며, 너의 마음이 말하는 것이 사지를 통해서 나타난다. 너의 마음이 없다면 귀, 눈, 입, 코도 없을 것이다. 너의 마음이란 단지 한 덩이의 혈육일 뿐만이 아니다. 만약 네가 단지 한 덩이 혈육일 뿐이라면 이미 죽은 사람에게도 한 덩이 혈육은 있는데 어찌서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지 못하는가? 너의 마음은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게 하는 주체로서, 그것이 곧 본성이며, 곧 천리(天理)이다. 이 본성이 있어서 이 본성의 생리(生理)를 발생하니 그것이 바로 인(仁)이다. 이 본성의 생리(=仁)가 눈에서 발동하면 볼 수 있고, 귀에서 발동하면 들을 수 있고, 입에서 발동하면 말할 수 있고, 사지(四肢)에서 발동하면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이 모두 천리(天理)의 발생일 뿐이니, 이것이 몸을 주재(主宰)하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한다. 이 마음의 본체는 본래 천리이니 예(禮)가 아님이 없다. 이것이 곧 너의 참 자아로서, 이 참된 자아가 육신을 주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자아가 없다면 나의 몸도 없는 것이니, 이 참 자아가 있으면 사는 것이고, 없으면 죽는 것이다.¹⁴⁾

이상에서 마음(心), 성(性), 천리(天理), 생리(生理), 인(仁), 주재(主宰) 등의 개념은 이목구비(耳目口鼻), 사지(四肢), 신(身), 구각(軀殼) 등과 대비된다. 왕양명은 마음, 성, 생리 등이 주재하지 않는 이목구비의 감각 작용은, 마치 죽은 시체에는 혈육의 이목구비가 있지만 감각 작용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이것은 참 자아로서 도덕자아의 정체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이 마음은 본래 천리이니 예(禮)가 아님이 없다.”는 말은 《논어》에서 공자가 “예(禮)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¹⁵⁾고 말한 것은 왕양명이 자신의 심즉리(心卽理)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참 자아(眞己)가 곧 천리(天理)임을 깨달을 때 일체의 행위가 그대로 예(禮)의 실현으로 승화한다는 뜻이다. 즉 인간의 자아는 도덕적 주체이며, 자아의 현실적 행위가 곧 그대로 보편 타당한 천리의 실현과정이라는 것이다.¹⁶⁾

14) 這視聽言動，皆是汝心。汝心之動發發於目，汝心之聽發發於耳，汝心之言發發於口，汝心之動發發於四肢。若無汝心，便無耳目口鼻。所謂汝心，亦不專是那團血肉。若是那一團血肉，如今已死的人，那一團血肉還在，緣何不能視聽言動？所謂汝心，卻是那能視聽言動的。這箇便是性，便是天理。有這箇性，才能生這性之生理，便謂之仁。這性之生理，發在目便會視，發在耳便會聽，發在口便會言，發在四肢便會動，都只是那天理發生。以其主宰一身，故謂之心。這心之本體，原只是箇天理。原無非禮。這箇便是汝之眞己。這箇眞己，是軀殼的主宰。若無眞己，便無軀殼。真是有之卽生，無之卽死。(《전습록》 상, 122)

15) 논어 안연 12.1

16) 왕양명의 철학은 종래에 버클리(Berkeley)의 주관유심론과 같은 것으로 오해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존주의 철학 혹은 현상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심즉리(心卽理)가 하나의 유의미한 철학적 명제로서 성립한다는 연구 성과가 주목된다. 즉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세계 속의 존재’(Being-in-the-world)의 개념에 의하면 인간 자아와 세계는 한편으로는 대립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의존하는 관계이다. 즉 개인의 세계는 한편 자신의 소유이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 타인의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이로써 보면 세계는 단순히 인식주관인 자아의 앞에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사물(死物)이 아니라 자아의 실존과 활발한 관계를

여기에서 왕양명이 말하는 인(仁)에 기초한 예(禮)의 실현은 바로 인간주의 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자아실현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력의 개발만으로 개인과 사회와 문명이 가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교육공학의 발전에 의문을 제기해온 실버맨(Silberman)은 “가장 급한 교육의 문제는 학교의 효율성을 어떻게 증진시킬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사회를 어떻게 창조하고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¹⁷⁾라고 한다. 즉 교육의 목표는 기계적인 사람이나 지식인이 아니라 인간다운 전인적 존재(Whole being)를 양성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전인적인 사람은 사랑하며, 내면적인 자아를 확장하며, 창조하며, 부단하게 스스로 배워나간다. 다시 말해서 인간주의 교육의 목표는 충분히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는 인간으로서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것이어야 한다. 즉 자아실현인을 개발하는데 교육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목표는 개인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이 가진 본성과 욕구에 부합한다. 기실 이 목표는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본래 타고난 것이며, 이 목표는 사회가 지향할 목표일 뿐 아니라 개인의 목표이자 생활의 목표인 것이다.¹⁸⁾

왕양명이 주장한 도덕 교육의 또 다른 의미가, 인간주의 교육이 지향하는 자아실현인 덕성 함양에 기초한 일종의 전인교육을 지향하는데 있다는 것을 다음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매일의 공부는 먼저 덕(德)을 살피고, 다음으로 책을 보지 않고 글을 암송하며, 다음으로 예(禮)를 익히거나 혹은 문장을 시험하며, 다음으로 다시 글을 암송하고 강론하며, 다음으로 시(詩)를 노래한다.¹⁹⁾

이와 같이 덕을 바탕으로 문장과 예와 시를 아울러 익히는 것은 당시로서는 일종의 전인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왕양명의 말을 통해서 보다 분명히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지금 아이를 가르침에 마땅히 효제충신(孝悌忠信)과 예의염치(禮義廉恥)로써 오로지 힘써야 한다. 그것을 기르고 함양하는 방법은 마땅히 시(詩)를 노래하는 것으로 이끌어 그 뜻을 펴게 하고, 예(禮)를 익히는 것으로 인도하여 그 위의(威儀)를 엄숙하게 하고, 글을 읽는 것으로 깨우쳐 그 지각(知覺)을 개발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왕왕 시를 노래하고 예를 익히는 것을 시무(時務)에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이는 모두 속되고 용렬한

맺고 있는 활물(活物)인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실재론적 관점에서 가해진 양명학에 대한 비판은 힘을 잃는다. 이 논문의 주제는 양명학의 이러한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미 많은 연구 성과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는 않는다.(劉述先, 《朱子哲學思想的發展與完成》, 臺灣學生書局 1995. 增訂3版. pp. 496-497 참조.)

17) Charles E. Silberman, *Crisis in the Classroom*, (New York : Random House, 1970), pp.196, 203.

18) 장상호 역, 같은 책, pp. 39-40.

19) 每日工夫, 先考德, 次背書誦書, 次習禮, 或作課做, 次復誦書講書, 次歌詩.(200조목)

견해이니, 어찌 옛 사람이 교육을 세운 뜻을 알 수 있겠는가?²⁰⁾

이로써 보면 왕양명의 교육방법은 효제충신(孝悌忠信)과 예의염치(禮義廉恥)의 도덕 교육이 중심이 되고 그것을 함양하는 방법으로서 시(詩)를 노래하고, 예(禮)를 익히며, 글을 읽는 것이 채택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각각 지의(志意)를 펴고, 위의(威儀)를 엄숙히 하며, 지각(知覺)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왕양명은 특히 시를 노래하고 예를 익히는 것을 고무하다고 여긴 당시의 학자들에게 옛 교육의 참뜻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시를 노래하고 예를 익히는 것이 교육에서 필수적인 과목이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정서함양(情緒涵養)과 자율도덕(自律道德)을 위한 순리(順理)적 교육방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왕양명은 시를 노래함(歌詩)으로써 지의를 펴고(發志意), 예를 익힘(習禮)으로써 위의를 엄숙히 하고(肅威儀), 글을 읽음(讀書)으로써 지각을 열어주는(開知覺) 3개 방법을 도덕교육의 기본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논어》에 보이는 “詩에서 흥기하고, 禮에서 서고, 樂에서 완성한다”(興於詩, 立於禮, 成於樂)는 공자의 말이 의미하는 바와 상통하는 것으로서, 공자가 학문의 기초를 詩에서 찾은 것과 같이 왕양명 역시 시를 매우 중시하였던 것이다.²¹⁾ 왕양명은 시를 노래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갖는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시를 노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비단 그 뜻을 펴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어린이들로 하여금 영가(詠歌)를 통해서 뛰고 소리치게 하여 억눌리고 막힌 정서를 음절로써 발산하게 하는 것이다.²²⁾

즉 왕양명은 시를 노래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막히고 억눌린 정서를 마음껏 발휘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학생들의 정서를 발휘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왕양명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0) 今教童子，惟當以孝弟忠信禮義廉恥爲專務。其栽培涵養之方，則宜誘之歌詩以發其志意，導之習禮以肅其威儀，諷之讀書以開其知覺。今人往往以歌詩習禮爲不切時務，此皆末俗庸鄙之見，烏足以知古人立教之意哉！(195조목)

21) 물론 이 경우 공자가 말한 詩는 詩經을 의미하며, 왕양명은 시를 노래하는 행위를 더 강조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22) 凡誘之歌詩者，非但發其志意而已，亦所以洩其跳號呼嘯於詠歌，宣其幽抑結滯於音節也。

대저 아이들의 정서는 노는 것을 좋아하고 구속됨을 싫어하니, 마치 초목이 처음 싹이 나올 때에 퍼서 자라게 하면 사방으로 퍼지고, 꺾어 구부리면 쇠퇴하는 것과 같다. 지금 아이들을 가르침에 반드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고무하여 참으로 마음을 기쁘게 하면 그 진전이 스스로 그칠 수 없을 것이다. 비유하면 때에 맞는 비와 봄바람이 초목을 적시면 싹이 움터 나와서 자연히 날로 성장하고, 만약 서리가 내리면 생의가 꺾여 날로 마르게 되는 것과 같다.²³⁾

즉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정서는 자유롭기를 추구하고 구속되기를 싫어하는 것이므로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여 정서를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비유하면 마치 봄에 싹이 틀 때에 알맞은 바람과 비가 와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러한 왕양명의 생각은 인간의 자유로운 정서가 곧 자연의 생명 질서와 일치한다는 인간관과 자연관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마음에 본질적으로 선악 양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정한 학습의 틀을 통해서 선(善)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주자학적 방법과는 다른 양명학적 방법이 투영된 것이다. 즉 왕양명은 인간의 마음(心)이 곧 천리(天理)라고 하는 심즉리(心卽理)론을 통해서 본심(本心)이 곧 선(善)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인간의 자연스러운 정서가 곧 자연의 생명 법칙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왕양명에게 있어서 어린 학생들의 정서를 태어난 그대로 펼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교육적 기초라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학생들을 억압하고 일정한 틀에 맞추며 나아가서 그들을 육체적으로 괴롭게 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여 본래의 정서를 해치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이었다. 그것은 왕양명의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무릇 예(禮)를 익히고 시(詩)를 노래하는 것은, 모두 항상 어린이의 마음을 보존하여, 즐겁게 익히고 싫어하지 않아서 사특한 것에 미칠 겨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²⁴⁾

여기에서 왕양명은 예를 익히고 시를 노래하는 것이 모두 ‘어린이의 마음’(童子之心)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어린이의 마음’이란 곧 태어난 그대로의 본심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태어난 그대로의 마음을 지키면 사특한 욕심이 미칠 수 없다는 것이 양명학의 기본적인 심법(心法)인 것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왕양명에 의하면, 예를 익히는 것도 단순히 몸가짐을 위외있게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있고, 독서 역시 단순히 지각을 연다는 의미를 넘어서 있다. 그는 예를 익히고 독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가

23) 大抵童子之情，樂嬉遊而憚拘檢，如(草木之始萌芽，舒暢之則條達，摧撓之則衰痿)。今教童子，必使其趨向鼓舞，中心喜悅，則其進自不能已。譬之時雨春風，霑被卉木，莫不萌動發越，自然日長月化，若冰霜剝落，則生意蕭索，日就枯槁矣。(195조목)

24) 凡習禮歌詩之類，皆所以常存童子之心，使其樂習不倦，而無暇及於邪僻。教者知此，則知所施矣(200조목)

있다고 말한다.

예(禮)를 익히도록 인도하는 것은, 비단 그 위의(威儀)를 엄숙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이리 저리 움직이고 읊(揖)하고 사양(辭讓)하면서 그 혈맥(血脈)을 통하게 하고 절하고 일어나며 굽히고 펴면서 그 뼈와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이다. 독서(讀書)로 인도하는 것은 비단 그 지각(知覺)을 개발할 뿐 아니라 또한 침잠하고 반복하여 그 마음을 보존하고 억양에 맞추어 성독(聲讀)하여 그 뜻을 펴게 하는 것이다. 무릇 이것은 모두 그 뜻을 순리(順理)대로 이끌고, 그 성정(性情)을 조화롭게 다스리고, 그 비굴하고 인색함을 없애고, 그 거칠고 어리석음을 은연중에 변화시킴으로써 날로 그들로 하여금 예의(禮儀)에 익숙하여 그 어려움을 힘들게 여기지 않게 하고, 자신도 모르게 중화(中和)의 경지(境地)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선왕(先王)이 가르침을 세운 은밀한 뜻이다.²⁵⁾

이로써 보면 왕양명에게 있어서 예(禮)를 익히고 독서(讀書)하는 것은 모두 외재적인 것을 몸에 익지로 익히거나 마음에 기억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정(性情)을 조화롭게 하고 마음의 자연스러운 정서를 펼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양명학에 있어서 자연스러움은 곧 마음의 자율성과 통한다. 위에서 왕양명이 밝힌 바와 같이 자연스러운 공부하는 자신도 모르게 중화의 경지로 들어가게 하는 공효가 있다고 하거니와 이는 도덕 실천을 자율적이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심즉리(心卽理)란 나의 마음을 벗어나 외재적인 도리(道理)를 추구하지 않고 도덕 실천 근거를 스스로의 마음에서 구하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당위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왕양명은 또한 시(詩)와 예(禮) 그리고 서(書)가 본래의 성정과 마음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방법이니만큼 노래하고, 익히며, 읽는데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먼저 시를 노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시를 노래함에는 모름지기 용모를 가지런히 하고 기운(氣運)을 안정시켜 그 성음(聲音)을 청량하게 하고 그 마디 가락을 고루 살피야 한다. 조금하게 서두르지 말고, 방자하여 요란하지 말고, 위축되어 소리를 죽이지 말아서, 오래하면 정신이 펼쳐지고 심기(心氣)가 화평해질 것이다. 매 학교마다 학생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네 반으로 나누어 매일 한 반씩 돌아가며 시를 노래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자리에 나아가 용모를 단정히 하고 엄숙하게 경청한다. 닷새마다 네 반을 모아 번갈아 본학(本學)에서 노래하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각 학교를 소집시켜 함께 서원에서 노래하도록 한다.²⁶⁾

25) 故 導之習禮者, 非但肅其威儀而已, 亦所以周旋揖讓而動蕩其血脈, 拜起屈伸而固束其筋骸也 風之讀書者, 非但開其知覺而已, 亦所以沈潛反覆而存其心, 抑揚諷誦以宣其志也 凡此皆所以順導其志意, 調理其性情, 潛消其鄙吝, 默化其蠢頑, 日使之漸於禮義而不苦其難, 入於中和而不知其故 是蓋先王立教之微意也.(195조목)

26) 凡歌詩須要整容定氣, 清朗其聲音, 均審其節調, 毋躁而急, 毋蕩而器, 毋餒而懦. 久則精神宣暢, 心氣和平矣. 每學童生多寡, 分爲四班, 每日輪一班歌詩, 其餘皆就席, 斂容肅聽. 每五日則總四班遞歌於本學. 每

또 예(禮)를 익히고 독서(讀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예를 익힘에는 모름지기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엄숙히 하며, 그 의례(儀禮)와 절차(節次)를 살피고, 그 행동거지를 법도에 맞추어야 한다. 소홀하여 나태하지 말고, 막혀 부끄러워하지 말고, 경솔하여 조잡하지 말며, 자연스럽되 느슨함에 빠지지 말고, 삼가 하되 국한됨에 빠지지 말아야 하니, 오래하면 예모가 익숙하고 덕성이 굳세고 안정될 것이다. 학생의 반을 나누기는 모두 시를 노래할 때와 같이 하되, 격일마다 한 반씩 돌아가며 예를 익히고 그 나머지는 모두 자리에 나아가 용모를 단정히 하고 엄숙하게 살피며, 예를 익히는 날에는 문장 짓기를 면제한다. 열흘마다 네 반을 모아 번갈아 본학(本學)에서 익히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각 학을 집합하여 함께 서원에서 익힌다.²⁷⁾

무릇 글을 가르침은 단지 많이 하기보다는 정밀하고 익숙하게 함이 중요하니, 그 자질을 헤아려 200자를 능히 할 수 있는 자라면 다만 100자만을 가르치는 것이 좋다. 항상 정신의 역량을 여유있게 한다면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병통이 없어서 자득(自得)하는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다. 성독(聲讀)할 때에는 마음을 오로지 하고 뜻을 한결같이 하여 입으로는 외우면서 마음으로 생각하여 자자구구를 실을 뿔듯이 반복하며, 그 음절을 누르고 올리며 그 마음과 뜻을 너그럽게 비우기를 힘써야 하니, 오래하면 의례가 몸에 배고 충명이 날로 열릴 것이다.²⁸⁾

이로써 보면 왕양명이 강조한 교육 방법은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지식을 주입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를 싫어하고 학습에 취미를 잃는 것을 경계한 것이며, 무엇보다 학생들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학습 내용과 학교 교육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왕양명의 이러한 교육 사상은 그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고 송대 유학의 전통 속에 전승된 것이었다. 한 예로 소학 외편(外便) 가언(嘉言) 광입교(廣立教) 조(條)에 의하면, 북송의 유학자들은 아동 교육에 있어서 외우고, 글 쓰는 지식 교육에 앞서 덕성 공부가 중요함을 지적하였고, 그것은 무엇보다 아동들에게 안정되고 하고, 자상하게 대하고, 공경하는 방법에 기초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⁹⁾ 학생들의 자율적 도덕 판단력의 양성을 중시하여, 양지(良知), 양능(良能)의 배양을 강조하였고³⁰⁾, 학습에 있어서 학생들의 흥

朔望則集各學會歌於書院.(197조목)

27) 凡習禮須要澄心肅慮, 審其儀節, 度其容止, 毋忽而惰, 毋沮而作, 毋徑而野, 從容而不失之迂緩, 脩謹而不失之拘局. 久則禮貌習熟, 德性堅定矣. 童生班次, 皆如歌詩. 每間一日, 則輪一班習禮, 其餘皆就席, 歛容肅觀. 習禮之日, 免其課做. 每十日則總四班遞習於本學. 每朔望則集各學會習於書院.(198조목)

28) 凡授書不在徒多, 但貴精熟. 量其資稟, 能二百字者, 止可授以一百字. 常使精神力量有餘, 則無厭苦之患, 而有自得之美. 諷誦之際, 務令專心一志. 口誦心惟, 字字句句, 紬繹反覆, 抑揚其音節, 寬虛其心意. 久則義禮浹洽, 聰明日開矣.(199조목)

29) 橫渠張先生曰, 教小兒, 先要安詳恭敬.

미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춤과 노래로 가르쳐야 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천 정선생이 말하기를, 학생을 가르침에 있어서 (학생 자신이 교육 내용에 대한)의미를 알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반드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니 노래와 춤으로 가르칠 것이다.³¹⁾

여기에서 노래와 춤은 교과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이천은 시경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관저(關雎)와 같은 종류의 시(詩) 뿐 아니라, 생활 예절의 절목들도 시가(詩歌)로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히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왕양명의 교육사상 중에서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람직한 교사에 대한 문제이다. 왕양명의 교사에 대한 견해는 다음의 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

매일 아침에 모든 학생들이 찾아와 인사하기를 마치거든, 교사는 차례대로 모든 학생에게 묻는다. ‘집에 있을 때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게으르고 소홀하여 능히 진실되지 못함이 없었는가? (부모를)따뜻하고 시원하게 해드리며 자리를 펴고 문 안드리는 의례를 빠뜨려 능히 진실로 실천하지 못함이 없었는가? 거리를 왕래함에 걸음 걷는 예절이 방탕하여 능히 삼가지 못함이 없었는가? 모든 언행과 마음가짐이 거짓되고 그릇되어 능히 진실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함이 없었는가?’ 모든 학생들은 사실대로 대답하여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노력하기를 힘써야 한다. 교사는 다시 학생들의 상황과 경우에 따라 꼭진하게 가르쳐서 개발하고, 그런 뒤에 각자 자리로 물러가 수업한다.³²⁾

여기에서 왕양명이 제시한 바람직한 교사는 학생 개인 개인과 직접 감성을 교류함으로써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는 교사이다.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왕양명은 매일 아침 학습이 시작하기 전에 교사들이 학생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학교 밖의 생활에서 도덕 실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야 하며, 학생 개인의 처지와 상황을 잘 이해함으로써 각 학생에 알맞은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의 개인적인 생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서로 감성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인간주의 교육이 훌륭한 교사의 성공 사례가 그들의 방법이나 체제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교사의 사람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30) 楊文公家訓曰, 童穉之學不止記誦養其良知良能.

31) 伊川程先生曰教人未見意趣必不樂學且教之歌舞.

32) 每日清晨, 諸生參揖畢, 教讀以次徧詢諸生 在家所以愛親敬長之心, 得無懈怠, 未能真切否 溫清定省之儀, 得無虧缺, 未能實踐否 往來街衢, 步趨禮節, 得無放蕩, 未能謹飭否 一應言行心術, 得無欺妄非僻, 未能忠信篤敬否 諸童子務要 各以實對, 有則改之, 無則加勉 教讀復隨時就事, 曲加誨諭開發, 然後各退就席肄業. (196조목)

훌륭한 교사는 단지 교과목의 전문가나 발달된 자료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인물이 아니라 학생과 인간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인간주의 교육에서 말하는 인간주의적 교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학생에 대한 사랑, 공감적 이해(empathic understanding), 및 학생 개인에 대한 존중으로써 왕양명이 제시한 바람직한 교사상(教師像)과 상통한다.

V. 왕양명 교육론의 특성과 현대적 의의

이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왕양명의 교육론은 당시의 경직되고 형식화된 교육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자유롭고 자연스러우며 일상생활에서 도덕 실천을 중시하는 도덕 교육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학습이 대부분 책을 읽고 외우는 지식 중심의 교육이며 또한 어린학생들부터 대학입시의 중압감을 받으며 학습하고 있다는 현실을 돌이켜 보면 왕양명의 교육사상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특히 현대의 인간주의 교육이론과 상통하는 면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고 하는 점에서 그 현대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겠다.

왕양명에 의하면, 학교 교육은 덕성교육이 중심이 되어 지식교육을 이끌어야 한다. 특히 교육 방법에 있어서, 덕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정서를 질곡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것을 주장하고, 나아가서 신체의 건강을 교육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는 등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며 혁신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왕양명의 교육 방법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 절대적 신뢰를 보여주는 그의 심학(心學)사상에 근거한 것이다.

왕양명은 도덕이 교육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나머지 지식의 문제는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현대 사회는 과학 지식이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는 사회로서 지식 교육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식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단지 도덕 문제만을 강조하는 것은 심지어 무의미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왕양명의 교육 사상이 단순히 도덕 교육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토대가 결여된 지식 교육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본질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그가 말하는 도덕은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타율적으로 규제하는 외재적 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본유(本有)한 자율적 내재 법칙에 의한 것이다.

왕양명에 있어서 도덕은 무엇보다 인간의 자연스런 정서와 건강한 신체를 전제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를 전제하고, 타인과 화합하며 나아가서 자연과 조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사실 왕양명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도덕의 실천이나 학습을 어렵게 여기는 것은 도덕을 주입식으로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 도덕이란 우리를 구속하고 형식화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덕과 규범이 없는 사회는 상상할 수 없다. 문제는 그것이 개인의 자연적이고 자유로운 성정과 어긋나서 오히려 인간을 구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지 않은 도덕일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 교육방법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일 것이다. 유교에서는 전자의 문제를 시중(時中)의 문제라고 하였거니와 지금 우리가 고찰한 왕양명의 교육론은 후자의 경우와 관계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대화하고 호흡하고 교육, 인간의 마음을 신뢰하여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도덕 판단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 교육이 요청된다는 문제를 왕양명은 심도있게 제시하고 그 방법을 오늘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자 교육학의 기본서인 소학은, 교육학 전공자들에게, 왕양명의 교육사상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왕양명의 교육사상은 현대의 인간주의 교육 이론 등과 대비할 때 매우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깊은 연구가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 필자의 시도는 단지 왕양명의 교육사상을 학교 교육이라는 범위에 국한해서 그 특성을 제시하는데 그쳤으며, 그 배후의 철학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시도하지 않았다. 또한 인간주의 교육에 대해서는 단지 왕양명의 교육 사상의 현대적 의의를 추구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대조하였을 뿐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에는 교육학에 대한 필자의 지식이 부족하다. 앞으로 전통 교육사상을 보다 심도 있고 광범위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통 철학전공자와 교육학 전공자의 학제 간 공동연구가 바람직할 것이다.³³⁾ 어쨌든 양명학에 대한 교육학적 관심이 앞으로 증대됨으로써 특히 지식 성과 위주의 오늘날 한국의 대학 교육 풍토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바란다.

원고접수: 2006년 11월 10일 1차심사: 11월 13일 게재승인일: 12월 10일

연구자 소개: 최일범

① 전공: 동양철학(종교철학) / 소속: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부 교수

② 관심영역: 주자학과 양명학의 工夫, 환경윤리.

③ 주요논저: 하곡 정제두의 공부론에 관한 연구, 고려중기 유불교섭의 철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 유교의 환경윤리.

④ E-mail: ilbeom01@hanmail.net

33) 전통 철학과 교육학의 학제 간 연구 성과의 한 본보기로는 이 논문에서 인용한 이은선교수의 왕양명과 페스탈로찌의 교육사상의 비교 연구를 들 수 있겠다. 이 연구는 지금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기대된다. 이은선 교수가 지적한 바, 페스탈로찌가 계몽주의의 건조한 이성주의에 불만을 느끼면서 1770년대 중반의 취리히 폭풍노도의 시기에 신비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경험한 “신의 직접성”(Gott-Unmittelbarkeit)과 그가 당시의 지시유행주의를 비판하면서 발견한 인간자유의 내면(Im Innersten der natur)의 관계, 그리고 이 근본경험(Gründerfahrung)에 기초하여 형성된 인간교육론, 다시 말하면 우주적 해결 대신에 각 개인의 실존과 자아 속에서 이 세계의 의미를 실현하려는 개인교 철학자 페스탈로찌와 극동의 유학자 왕양명의 사상의 관계를 더욱 깊게 연결하는 것은 양명학의 새로운 발견을 위해서 뿐 아니라 동서 사상의 교류 상에도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WangYangming(王陽明)'s Educational Thought.

Choi Ilbeom

Sung Kyun Kwan University

The ultimate goal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 of WangYangming (王陽明)'s educational thought in school education as well as its modern meaning by way of comparison with the Humanistic Education which is one of the most impressive modern educational theories. When we are trying to find the educational goal and methodology, in spite of various difference along a limit of time and space, I think that there are actually many areas in which both WangYangming (王陽明)'s educational thought and the Humanistic Education are in agreement.

For example, the Humanistic Education pursues self-actualization and desirable human relations by takes aim at affective education as well cognitive learning. And educational method of WangYangming cultivates freely human emotion, pursues reason practice of personal relations through understanding of liangzhi(良知), futhermore, chases harmonize of human and nature. This means that Human Education and Yangming Learning(陽明學) are commonly watching moral-self of human to the subject of value realization and truth discovery. As such, I believe what illuminate Yangming Learning(陽明學) in viewpoint of Humanistic Education will be helpful for deep understand human and research of a world view. In addition, It will be made relevant to us in our solution of modern education's urgent problem.

Key words : liangzhi(良知), Humanistic Education, self-actualization, Gott-Unmittelbarkeit